

NextJS로 만든 가계부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는 NextJS를 활용하여 개발한 가계부 애플리케이션 입니다. 사용자가 일일, 월별 수입과 지출을 추적하고 자산을 관 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팀장 정의현

팀원

박효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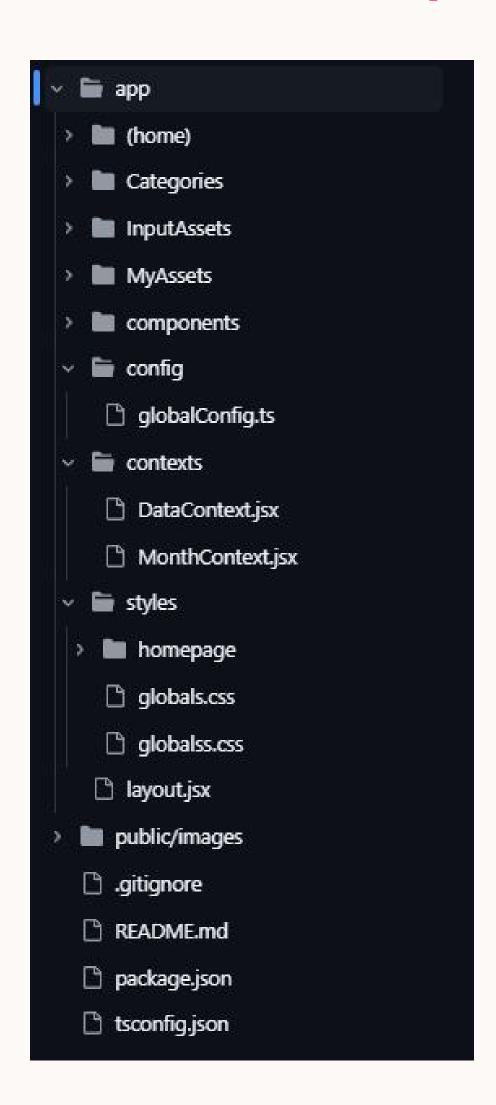
팀원

박문현

팀원

유선호

NextJS 폴더 구조



(home), Categories, InputAssets 프로젝트의 페이지 개발 범위입니다.

components

공용 components 개발하는 폴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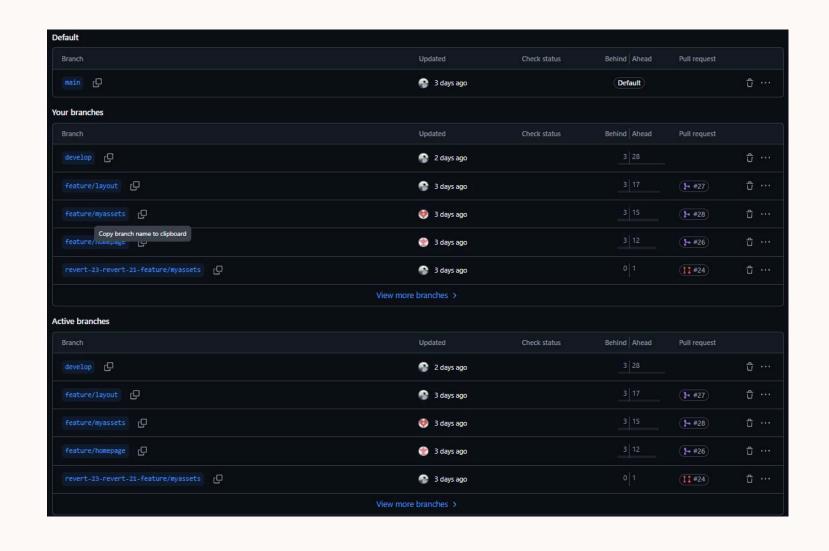
config, contexts

가계부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임의 데이터셋 및 수정하기 위한 폴더입니다.

styles, public/images

css 파일 및 image를 넣어둔 폴더입니다.

개발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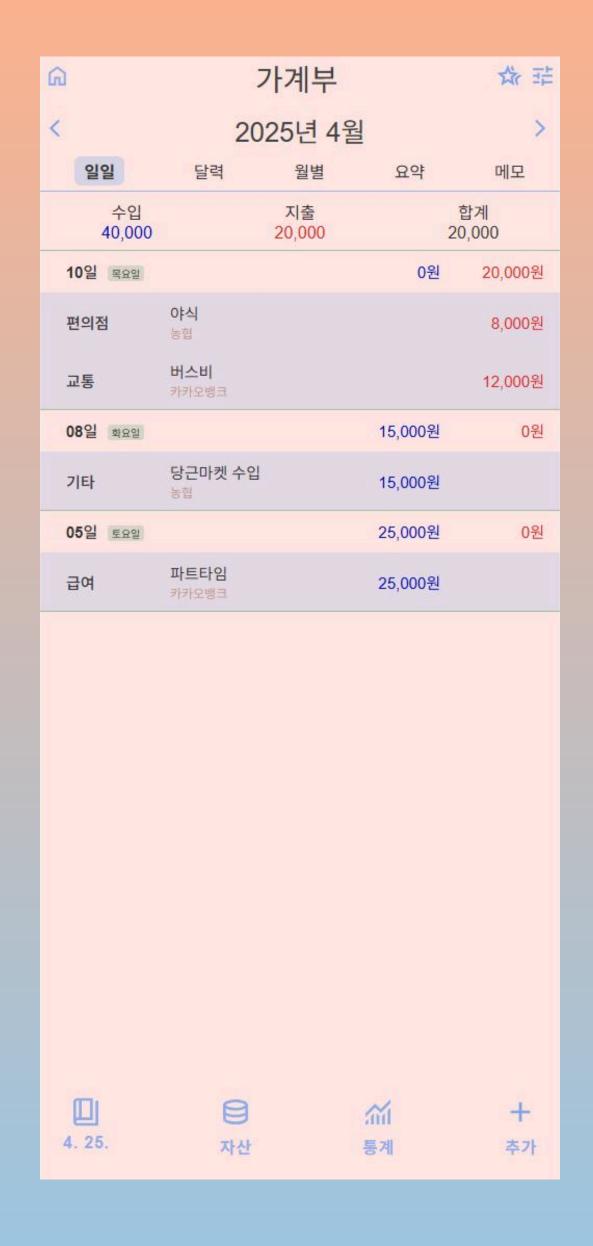


Git flow 방식 이용

- main develop feature/{기능명} 으로 개발했으며 PR(Pull Request)를 통해 develop에서 merge하는 순서로 개발했습니다.
- 프로젝트 폴더 구조를 정하여 팀원마다 개발 범위를 부여 했으며 최대한 충돌이 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노션으로 협업

- 게스트 페이지로 팀원을 초대하여 각자 맡은 부분을 나눠
 서 작성하였습니다.
- 일정이나 회의록을 한 곳에 모아 관리했으며 프로젝트의 진행도를 보기 쉽게 나타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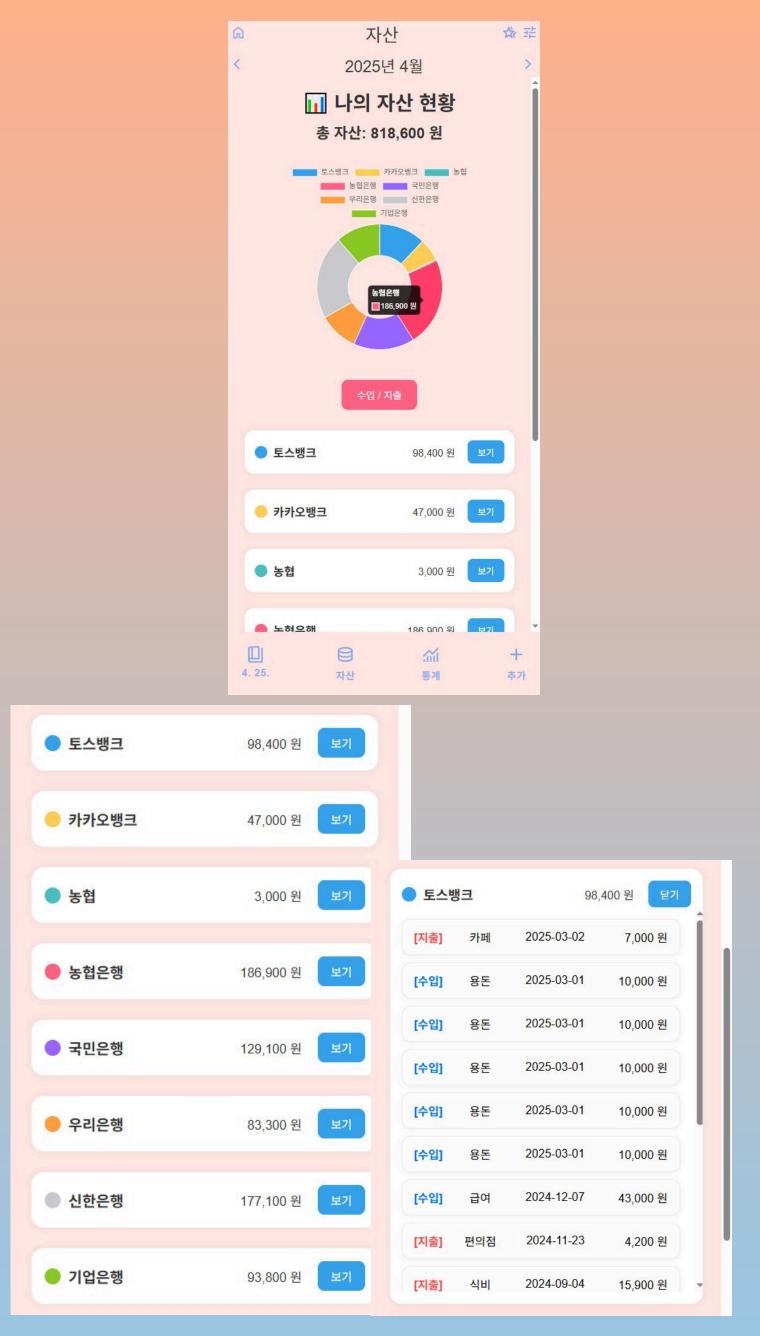
메인페이지기능

박효림

해당월의 지출과 수입을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 header 에는 해당월을 나타내며 측면의 화살표 모양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동 시에는 해당월의 데이터가 새롭 게 나오며 내림차순으로 데이터를 정렬하였습니다.
- 수입, 지출, 합계에서는 당월의 데이터를 계산하였습니다.
- 상세 목록에서는 카테고리, 메모, 은행사, 수입 및 지출을 나타내며 일자별로 데이터를 정렬하였습니다. 해당 값을 누르면 해당 값을 수정할 수 있는 수정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다.

헤더 아래에 있는 달력, 월별, 요약, 메모 기능은 시간 관계상 달력과 월별 항목 틀만 만들어 놓고 데이터와 연동은 하지 못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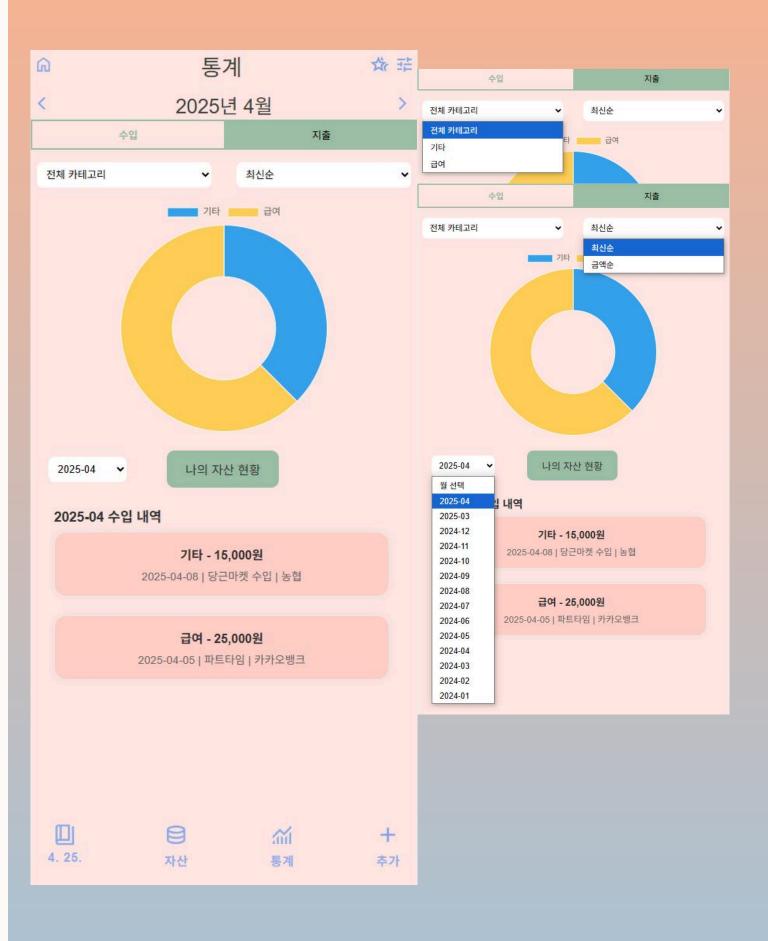
자산 페이지

유선호

- chart.js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도넛 차트로 자산 데이터 를 시작적으로 표현한 자산 페이지 입니다.
- 차트 시각화와 인터랙션 기능을 함께 제공하여, 사용자의 자산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주요 기능 요약

- 자산 데이터를 자산명 기준으로 그룹화
- 수입과 지출을 합산하여 잔액 계산
- 도넛 차트를 통해 각 자산의 잔액 비중 시각화
- 자산별로 상세 내역 확인 가능 (토글 방식)
- 상세 항목 클릭 시 수정 페이지로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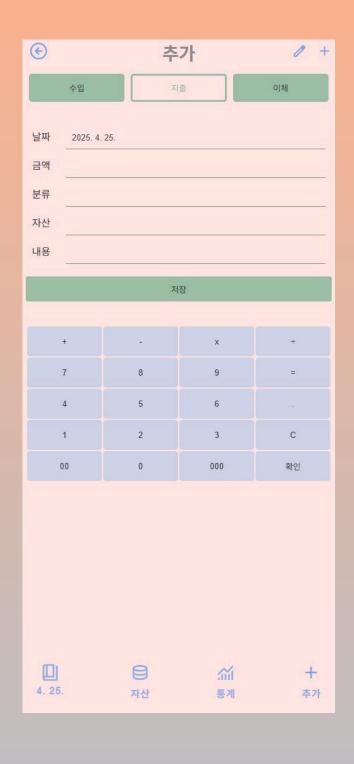
통계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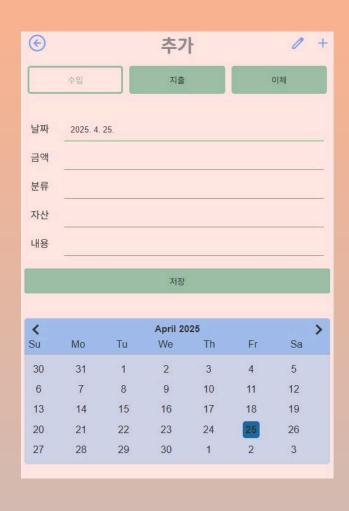
유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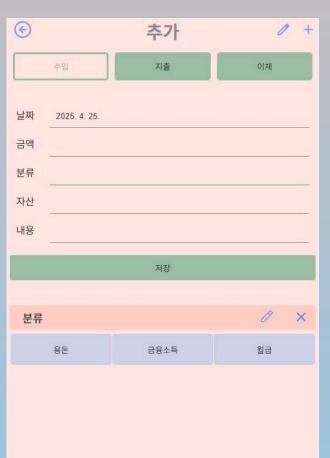
- asset-detail-page.jsx는 사용자의 월별 수입/지출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다양한 필터링 및 정렬 옵션을 통해 항목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 주요 기능은 도넛 차트 시각화, 카테고리 및 정렬 필터, 월별 수입/지출 내역 리스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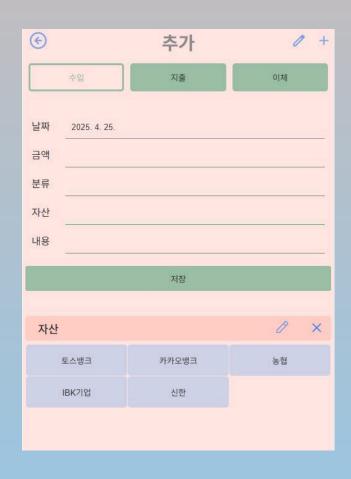
주요 기능 요약

- *(수입 또는 지출) 탭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해당 탭에 따라 목록 및 차트에 표시되는 데이터가 바뀜
- 월별 그룹핑을 통해 해당 월의 데이터를 필터링
- 카테고리 필터를 통해 전체 or 카테고리 단위로 필터링
- 카테고리는 최신순 or 금액순으로 필터링 가능
- 드롭다운을 통해 데이터를 선택할 월을 변경 가능









입력 페이지

정의현

- 자산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한 페이지입니다.
- 계산기 부분은 키보드, 버튼 입력이 둘 다 가능하며 엔터 또는 확인 클릭 시 적어둔 연산이 '10,000원' 형식으로 입력됩니다.
- 메모를 제외한 모든 항목을 작성해야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아닐 시 console 창으로 경고를 보여줍니다.
- 분류와 자산 버튼 UI에서 펜을 클릭할 경우 카테고리 수정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주요 기능 요약

- 날짜, 분류, 자산은 클릭 시 버튼 UI가 나오며 버튼 클릭으로만 데이터 입력이 가능합니다.
- 저장 버튼을 클릭 시 DataContext의 List 데이터에
 {id, date, price, category, asset, memo} 형식으로 추가하며 id는 가장 마지막 값에서 1을 더해 저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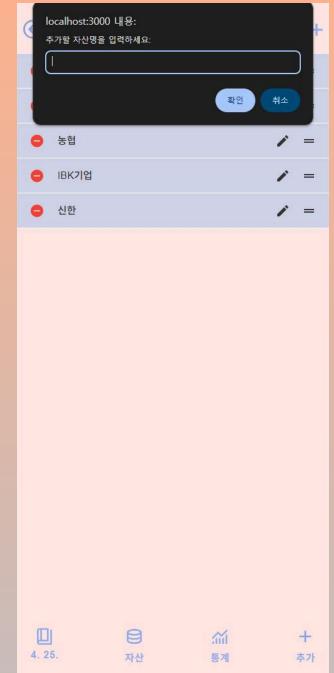
(C)		추	추가	
	수입		ž	이체
금액				
	수정 삭제			
+			×	÷
7		8	9	=
4		5	6	
1		2	3	С
0	0	0	000	확인
4. 27.		자산	介	十 추가

수정, 삭제 페이지

정의현

- 외부에서 이미 작성된 가계부 데이터에 접근했을 때 보이는 페이지입니다.
- 입력 페이지와 차이점으로 수정과 삭제 버튼이 있습니다.
- 수정 버튼은 기존의 데이터에서 id 값을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
 를 수정한 값에 맞게 저장합니다.
- 삭제 버튼은 해당 데이터를 DataContext List에서 삭제합니다.
- 이외 동작은 입력 페이지와 동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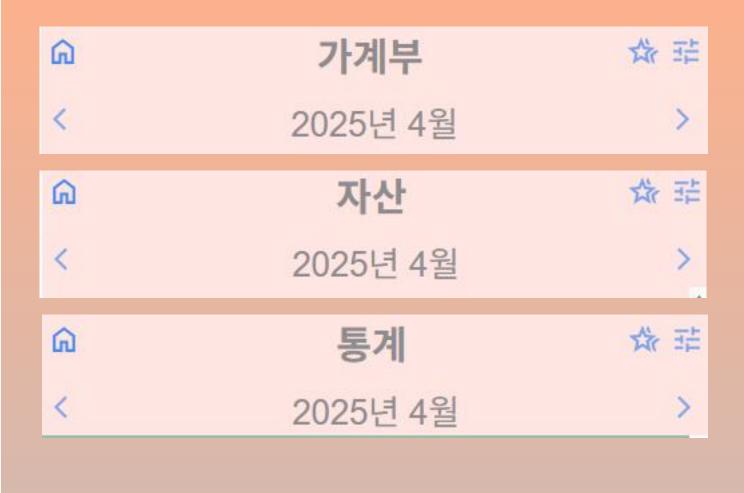






카테고리 수정 페이지 정의현

- 입력 페이지나 수정 & 삭제 페이지에서 분류나 자산 버튼 UI에서 편집 버튼을 클릭할 경우 보이는 페이지입니다.
- 자산 버튼 UI에서 들어올 경우 자산 설정 페이지로 들어가며 분류 버튼 UI에서 들어올 경우에는 지출, 수입 탭에 따라 분류 되어 들어옵니다.
- 해당 페이지에서 기존에 있던 카테고리 분류 표를 보여주며
 위에 있는 + 버튼으로 추가할 수 있으며, 펜 모양 편집 버튼을
 통해 기존 카테고리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공용 header, footer 및 layout 개발

박문현

1. 헤더 부분

- 페이지 제목을 설정
 공용 헤더로 각 페이지별 이동했을 때 텍스트를 다르게 설 정하는 기능
- 아이콘 버튼: 홈, 즐겨찾기, 필터 등의 아이콘 버튼을 제공 합니다. (즐겨찾기, 필터 기능 자체는 구현x)

2. 푸터 부분

- 날짜 포멧팅을 통해여 첫 카테고리 버튼의 현재 날짜를 표기
- 주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버튼 기능 개발

3. 레이아웃

• NextJS 라우팅은 폴더 기반이기에 공통 layout이 특정 페이지에서 다르게 출력하도록 개발

정의현

4명이서 협업하는 프로젝트 팀장을 맡아 전체를 관리해보니 깃허브 협업부터 시작해서, 프로젝트 기능 분리, 프로젝트 전체기간 산정, 기간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 지 등이 어려웠습니다. FrontEnd에 익숙하지 않아 팀원들의 코드를 리뷰할시간이 없었고, 저에게 할당된 일만 해도 벅찬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BackEnd만 열심히 하다가 FrontEnt도 만지고 보니, 서로가 힘든 부분이 어디고, 협업할 때 어디를 고쳐야 할 지 보이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다음 프로젝트에서는 여기서 느낀 점들을 참고하여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박문현

잘 모르고 로직 작성을 잘 할줄도 모르는데 물어보면 계속 알려주시려고 도와주신 팀원들에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nextjs를 이용하면서 파일디렉토리 및 프로젝트 구조에 대해서 어느정도 감이 잡힌것 같다. git터미널 사용하면서 크게 코드에 문제가생기는경우는 없었지만 아직은 너무 어려워서 연습이 많이 필요한것같음

유선호

깃허브는 처음 써보는거라 뭔가 버벅거리는것도 있고 실수하는것도 있었던거 같은데 옆에서 잘 이끌어주고 도움 많이 주신 팀장님 감사합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코드 개발보단 아이디어와 설계 깃 브랜치 전략 요구사항 분석 같은게 더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물론 개발에 대한 공부도 계속 해야하겠지만 뭔가 더 넓게 보고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중입니다.

박효림

팀플이 처음은 아니지만 코딩에서의 협업은 처음이기에 조원들에게 고마운 마음보다는 미안한 마음이 조금 더 큽니다. 특히 옆자리에 앉아 있어 별 쓸모없는 질문을 다 받아준 조장님께는 더더욱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깃허브도 사실 한 거라고는 커밋과 머지 요청뿐이지만 이마저도 안 하던 것이라 신기하고 정말 편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션은 제가 뭘 한 게 없어서... 할 말이 없지만! 노션도 잘 정리해준 조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이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하며 모든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정말이지 모든 게 낯설고 쉽지 않았습니다. 우선은 전반적인 내용을 조금 더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많은 걸 모르더라고요. 개인적으로도 아주 작은 걸 하나씩 만들어 가며 계단식으로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